

##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작년 2월 말, 학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완도 청해진으로 내려가는 날, 봄날의 햇볕이 유난히 밝고 따듯했지요. 1년 반 완도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퇴임식을 하는 날도 여름의 마지막 햇살이 명랑함을 드러내며 완도중 운동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내내 새롭게 운동장 인조 잔디를 단장했는데, 초록색이 시원한 운동장을 선물로 남겨 주느라 애썼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태풍 영향권으로 비라도 내리고 구질구질한 양상이었다면 아마 울적한 마음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완도 청해진의 하늘도 항상 내 편이었던 것 같아서 훈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도 돕고, 온 학교가 돕고 온 마을이 도와서, 나의 55년간(배우며 16년 + 가르치며 39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배웅해 주니, 웃으며 안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울적한 마음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환대받으며 서로 이별의 아쉬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 꿈같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퇴직 기념 책을 만들 때처럼, 퇴임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그 수고를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은 이벤트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말만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환대를 나의 정성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그 정성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또 그들에게까지 도달하

려니 생각하거든요. 사랑도 받아 본 사람들이 또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 사랑의 이벤트가 나를 감격하게 하고 눈물짓게 하였습니다. 그저 감탄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표현해 준 완도 청해진의 사람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완도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8월 마지막 날,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는 교장을 위해 퇴임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7교시 수업을 마치고 평소 같으면 하교할 시간에 260명 학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교장에게 예를 표하겠다고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천방지축 중2들도 조용하게 교장의 회고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박수쳐 주고, 아쉽다고 눈시울 붉히다니요. 10개 반의 아이들이 각각 독특한 장면을 연출하며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녕! 교장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학생자치회장은 꽃다발을 전달하며 붉어진 눈을 애써 감춥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전달되어 나도 가슴이 찡합니다. 현존아, 친구들과 후배들을 부탁한다. 잘 해 낼 것을 믿는다.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1년 반의 소중한 장면들을 모아 영상으로 뒤돌아보게 해 주며, 나의 모습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향해하던 배가 정박하듯 39년간의 교육의 항해일지에 마침표를 찍는 교장에게 스승이라고, 선배라고, 새로운 출발하는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패를 만들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에게 숙제도 주었습니다. 퇴직 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 그래서 더 멋진 앞날 만들기. 그 숙제 잘 해 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인생 선배의 모습 보여줄까 합니다. 단지 선배로서 더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압박하게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한 발 뺀 것

은 아닌지, 그들에게 큰 짐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그저 저어됩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은 완도 청해진 사람들의 호탕한 정성을 모아나를 깜짝 놀라게, 평생 처음 받는 큰 선물을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게 하십니다. 책임기와 글쓰기 활성화를 위해 애써준 것과 매일 아침 흔들림 없이 등굣길을 지켜주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친근하게 대해 주던 모습을 잊지 못할 거라며 헤어짐이 아쉽다고 감사패에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학부모회장님과 어머니들은 풍선 아트로 식장을 장식해 주고, 평생 간직하며 그 정성에 감동하기에 충분한 수공예 작품 선물로 눈물짓게 하십니다. 행복나무에 좋은 과일 열리게 해 주었다는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매년 벚꽃과 수국이 운동장가에 필 때, 효경수국이라, 효경벚꽃이라 부르며 그리워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 도대체 이 풍성한 마음들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내가 참 큰 빚을 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보람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온 힘과 정성을 다했을 때 종종 일어나는 것이고,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자주 위태롭게 이어져 가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더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어린 소통이 있을 때 학교가 더 건강해지고 학생들은 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교육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교육의 후배들이 내게 남긴 숙제를 잘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보잘 것 없는 힘과 능력이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배우며,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나는 완도 청해진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서망산 중턱 청해진 남로 88번지 학교 교문에 마음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아, 어서와. 오늘도 파이팅~!!!

## 나 하나 꽃 피어



최근 공직 후보자의 친일 사관 언행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더니 결국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진행됐다. 그래도 이 답답한 현실과 폭폭 찌는 무더위에 한줄기 소나기처럼 의미 있는 8·15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다. 어렵게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고 가수 션이 함께하는 '2024 815리'는 8·15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감사함을 공유하며 3.1km(삼일절), 4.5km(1945년), 8.15km를 뛰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이번 815리에는 지난해 참가자 8150명의 두 배인 1만6300명이 참여해 13억여원을 모금했다. 가수 션은 "매년 81.5km를 뛰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 모은 것을 바치신 독립투사분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입니다"라며 새집에 들어가시는 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시는 할머니에게 100호까지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1700여명이 우리 지역 광주고려인 마을로 입국하고자 했지만, 항공료가 없었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조국을 떠나야 했던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했던 난민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추방당하자, 한국으로 입국한 우리 선조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광주고려인마을의 이천영 목사는 "우리 민족인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행히 대한적십자사가 우크라이나 돕기 국민 성금 일부를 항공료 일부와 생계비로 지원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독립유공자와 고려인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국민적 나눔으로 승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나눔을 더욱 확장시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금단체들이 815리와 같은 의미 있는 이웃 돕기 캠페인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100원, 6250원, 8150원의 미 있는 나눔에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겠느냐?"라는 조동화 시인의 시를 낭독하며 '나부터' 동참하길, 그래서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해 본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 청렴 프로그램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기고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다산의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생활원칙으로 율기육조를 언급하며 목민관이 지켜야 할 '청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목민관은 마음가짐이 언제나 청렴결백하도록 늘 자신을 깨우치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청렴'이 200년 전 조선사회에서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중요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직원행동강령, 청렴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기관이 되었다는 다짐을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청렴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에서는 목포지역 공우회와 함께 청렴 SNS 릴레이 캠페인 등 대내외적인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지역 공공기관 협의체인 공우회는 2003년부터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목포지역 21개 공공기관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왔다. 지난 3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 선정한 '청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라는 청렴 슬로건을 6개월 간 10개 공공기관장이 직접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해 왔으며,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

기관이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전 행사가 있었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공우회 회원들이 청렴 손부채와 음료를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청렴 High Five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목포지역의 청렴문화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청렴의 어원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일과나 업무중에 생활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근해 본다면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단에서는 사무실 계단에 직원들이 직접 창작한 청렴문구를 게시하고, 워크숍 프로그램 중 '청렴 Quiz in 목포'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청렴시네마, 부패사건 법원 공판체험, 다산 정약용 박물관 체험,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탐방 등 MZ세대 직원들이 피부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 청렴 의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일일찾집 운영을 통한 기부금 전달,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 기증을 하고 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내규와 자체강령을 통해 직원들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청렴의식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내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심'을 유도해 보는 것도 청렴의 생활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군 전역 후 신중한 직업 선택의 중요성

기고

정남용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멘토



올해 기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역한 군 간부는 약 9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제대군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기복무 계급정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역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있는 30~40대의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나 또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7년여 넘는 시간 동안 군복무 후 대위로 전역을 했고, 처음에는 무작정 장교를 우대하는 회사를 선택해 합격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지만 제가 속한 부서는 영업직이었고 저와는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그러다가 인천공항에서 경비 분야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공항을 방호하는 일 또한 군대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성격

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사기업의 특성상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게 돼 있고 성과가 없는 직원은 후배들에게 밀리는 등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기엔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었다.

그렇게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치 않게 방호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확인하게 됐다. 방호직 공무원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뉘는데 국가직은 관련 경력과 업무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2년 가까이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태권도 단종은 2단에서 3단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가스안전관리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사항을 취득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리라 생각돼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해 뿌듯한 마음으로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달성했

다. 인천공항 경비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보안 분야 우수 유공으로 본부장 표창 1회, 대표이사 표창 1회를 받는 등 회사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 드디어 국제청방호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하게 됐다.

누구든 기회는 다가온다.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 등 준비를 누가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는 취업의 성패를 다루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내가 공무원이 됐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내세우기에 속스럽고 부족하지만, 안정된 직장생활 경험을 해본 선배로서 군 후배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조금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전역하는 후배들에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쫓기듯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나의 관심사인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